

# “추가 대출하면 위법”...보이스피싱 경계령

### 금융기관 직원 사칭 피해금 수금액 2명 구속 경찰, 저금리 알선 등 금전 요구 땀 주의 당부

금융 기관 등을 사칭해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사기 등)로 A씨(41)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시 45분께 서구 치평동 한 인도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1,180만원 건네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일당은 저축

은행을 사칭, ‘기존 대출금 상환 없이 추가 대출 신청한 것은 위법이다’라고 위협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직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 “타 금융기관에 대출금 1,180만 원이 남아있다. 기존 대출금 상환 없이 대출을 추가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 위반이다”라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기존 대출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가장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수금액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거둬 총책에게 보내는 범행을 하다 수감됐으며, 최근 가석방돼 누범기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금융 거래내역 조회와 탐문 수사를 통해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서울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서부경찰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B씨(21)도 구속했다.

B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 55분께

광산구 한 병원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통신추적이 어려운 보안 강화 메시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를 받아 수금액 노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보이스피싱 일당은 금융감독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있는데도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에 빌린 돈부터 갚아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말에 속은 피해자는 이달 11일에 또 대출금 상환 명목의 951만 원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하루 사이에 거둬 돈을 요구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잠복 수사 끝에 B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춘천·부산 등지에서도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저금리 대출 상품을 알선하는 수법에서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잊지도 않은 법령을 틈타며 금전을 요구한 사례다”며 “금융기관은 대출금·보통예금을 직접 만나 상환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종찬 기자

**오늘의 날씨**

광주	12~20	순천	12~19	광양	13~20
나주	11~20	목포	13~19	여수	14~19

일출 07:09 일몰 17:25  
월출 09:14 월몰 19:14

장성	9~20	흑산도	15~20
담양	9~20	구례	8~19
화순	10~20	곡성	7~19
영광	10~20	완도	13~19
함평	11~21	강진	12~20
무안	11~20	장흥	11~19
영암	11~21	해남	12~20
진도	13~20	고흥	11~19
신안	12~20	보성	9~18

목포	만조 03:07 15:52	여수	만조 10:31 22:31
	간조 08:22 21:00		간조 03:47 16:32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 가수 홍진영, 시교육청 유튜브 출연 논란 스타발굴단서 학생 응원...“부적절하다” 지적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가수 홍진영이 광주시교육청 유튜브에 출연 학생들의 꿈을 응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적으로 논란이 된 상황에서 교육청 공식 SNS 채널에 등장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홍진영은 시 교육청이 꿈과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려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콘텐츠 ‘빛고를 광주교육 스타발굴단’에 출연해 가수가 꿈인 모여고 학생들을 응원하고 있다.

홍진영은 지난달 초 제작해 유튜브 동영상에서 “음악을 좋아하고 꿈과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뮤지션이 될 때까

지 응원하겠다”며 학생들을 응원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최근 홍진영의 조선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홍진영의 유튜브 영상이 학생들에게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 김모씨는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파급력 있는 연예인이 교육청에서 공식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한다는 자체가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홍진영 관련 동영상상을 노출하지 않는 방안 등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새해 달력 만들어요”** 2021년을 한 달 보름여 앞둔 16일 오전 광주 운암도서관 어린이실에서 도서관 직원들이 독서부흥을 위해 독서 명언 등을 수록한 새해 달력을 제작, 지역 초·중·고등학교와 공공도서관에 배부하기 위해 정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 오늘 광주·전남지역 5mm 비

광주와 전남지역에 5mm 내외의 비가 내리겠다.

1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7일 광주와 전남 지역에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5mm다.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빗방울까지 겹쳐 이른 아침에는 짙은 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다.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7~14도, 낮 최고기온은 18~21도가 되겠다.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12~16도, 낮 최고기온은 20~22도 사이에 분포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빗방울과 함께 연무가 뒤섞여 교통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며 “일교차도 10도 이상 나겠으니 건강관리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찬 기자

### “도둑인 줄...” 이웃에 흥기 위험

도둑인 줄 알고 이웃 주민을 흥기로 위협한 남성이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웃 주민을 흥기로 위협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께 복구의 한 도로에서 귀가하던 모자 사이인 피해자 2명을 흥기로 위협한 혐의다.

귀가 후 집 앞에 놓아둔 쌀 포대가 사라진 것으로 발견한 A씨는 도둑이 든 줄 알고 흥기를 들고 도둑을 찾아 나섰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다가오지 말라고 흥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둑인 줄 알고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지만, 흥기로 위협한 죄는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종찬 기자

## 국내 항생제 처방 27.7% 부적절

질병청, 사용수칙 준수 당부

국내 항생제 처방률이 거의 남용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 평균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당국이 올바른 사용 수칙을 당부하고 나섰다.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국민 1,000명 중 매일 항생제를 복용하는 사람 숫자)은 2018년 기준 2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 평균인 18.6보다 높다.

질병청이 지난 2018년 내놓은 ‘항생제 사용실태 분석 및 처방 적정성 평가

체계 개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적절한 항생제 처방은 27.7% 수준에 달했다.

특히 항생제가 필요 없는 감기(급성상기도감염) 환자의 항생제 처방률은 2016년 42.9%, 2017년 39.68%, 2018년 38.42%, 2019년 38.3% 등 40% 안팎에 이르는 조사 결과도 있다.

다.

그러나 지난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40.2%)’, ‘항생제 복용 기간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중단해도 된다(39.4%)’는 답변이 여전히 많았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질병청은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과 내성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인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동참해 항생제 내성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만 항생제 복용하기 ▲처방받은 항생제는 용법과 기간을 지켜 복용하기 ▲남겨둔 항생제를 증상이 비슷하다고 임의로 먹지 않기 등의 수칙을 지키는 게 좋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년부터 매년 11월 셋째 주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World Antibiotic Awareness Week)으로 지정해 국가별로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정상에 우뚝 서다!**

열손가락 없는 장애를 딛고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산악인 김홍빈 대장,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

역경을 딛고 정상을 향한 끝없는 도전정신, 바로 중흥S-클래스의 정신입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개 봉우리 중 13번째 봉우리 가셔브롬 I (8068m) 정상에 오른 김홍빈 대장(2019. 7. 7)

www.s-class.co.kr

**중흥S-클래스**

목포하당지구 중흥S-클래스 센텀뷰    세종시 중흥S-클래스 센텀뷰    광교신도시 중흥S-클래스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 2017 매일경제 '살기좋은 아파트' 국무총리상 |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아파트 대상
- 2016 매일경제 '토목건축기술대상' 건축부문 주거용 최우수상 |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브랜드대상
- 2015 대한민국 고효율 친환경 주거 및 건축 기자재 대상 | 매일경제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상
- 2014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종합대상 | 한국경제 '주거문화대상' 아파트상